

# 오리온 제주용암수, iF 디자인어워드서 본상

제주도 자연 모티브로 세계적 인정받아  
올해 상반기 중국, 베트남 등 글로벌로

오리온은 오리온 제주용암수가 '2020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패키지 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리온 제주용암수는 파슨스 디자인스쿨 제품 디자인과 교수를 역임하고 레드닷, iF 등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를 석권한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가 디자인을 맡았다.

오리온 제주용암수는 제주도의 자연을 모티브로 세로선과 가로선을 활용, 각각 주 상질리와 바다의 수평선을 형상화했다. 병 라벨에는 우뚝 솟은 한라산과 밤하늘에 빛나는 오리온 별자리를 담아 제주의 낮과 밤을 그려냈다. 최소한의 플라스틱을 사용했

음에도 기존 페트병 대비 약 4배 정도의 고압 하중을 견뎌내는 등 기능적으로도 뛰어나다.

오리온 제주용암수는 미네랄 부족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풍부한 미네랄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몸의 산성화를 겪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pH 8.1~8.9로 약알칼리화했다.



오리온제주용암수는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혹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가정배송으로 주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중국, 베트남 등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해 세계적 명수들과 경쟁해 나갈 계획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제주도 자연을 모티브로 한 오리온 제주용암수의 아름다운 디자인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최고의 디자인과 제품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미네랄 워터 시장을 개척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metroseoul.co.kr

## 롯데면세점, 생분해 에어캡·종이쇼핑백 도입

롯데면세점이 업계 최초로 생분해 에어캡과 친환경 종이쇼핑백을 도입해 면세업계 친환경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

지난 10일부터 롯데면세점 인천 통합물류센터와 인천공항점에 시범 도입된 생분해 소재 비닐은 토지 매립 시 180일 이내에 80% 이상 자연 분해되는 제품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의 이번 개선책은 오는 4월까지 국내 롯데면세점 전 영업점 및 물류센터로 확대될 방침이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9월부터 통합물류센터에서 공항 인도장까지의 상품 운송 수단을 행낭에서 상품보호기능이 강화된 플라스틱 용기로 교체함으로써 업계에서 가장 먼저 비닐 사용 최소화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더해 비닐 포장재 또한 생분해 소재로 교체함에 따라 연간 200톤의 비닐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에는 생분해 비닐 쇼핑백뿐만 아니라 종이쇼핑백 또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피가 작거나 가벼운



롯데면세점, '친환경 사업 가속화' 업계 최초 생분해 에어캡 종이쇼핑백 도입. /롯데면세점

제품을 담는 소사이즈 비닐백이 친환경 종이백으로 대체되며, 오는 4월까지 롯데면세점 전 영업점으로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오늘의 운세 2월 18일 (음 1월 25일)



36년생 고민이 많으나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48년생 앓던 이가 쑥 빠지는 날. 60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해답이 보인다. 72년생 기아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84년생 일이 많아지니 신명이 난다.



37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날. 49년생 초조해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자. 61년생 판단력이 흐려진다. 서류를 잘 살펴라. 73년생 씨를 뿐여야 수확을 하듯이 노력이 먼저. 85년생 우물에서 승승 찾지 말고 사에 순서대로.



38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50년생 상대의 작은 실수는 덮어 주는 것이 나에게 유리. 62년생 어탕 속 물고기처럼 변화 없는 하루. 74년생 생수 9 흰색이 행운을 준다. 86년생 현명한 사람은 늘 배우며 산다.



39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라 주지 않는다. 51년생 해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밤이나 절망은 금물. 63년생 결과가 좋으니 모든 것이 편하다. 75년생 상대는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생각. 87년생 믿음을 가지고 일을 추진.



40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52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어 본들. 64년생 공심은 데 콩이고 팔심은 데 팔 난다. 76년생 성공이 끝이 아니니 교만하지 마라. 88년생 무에서 유로 창출하는 성과가.



41년생 자녀들의 삶도 고단하다는 것을 알아라. 53년생 앞만 보고 달리니 시야가 좁다. 65년생 가지 못한 길에 어수智商이 남는다. 77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한다. 89년생 별을 두려워하면 좋은 꿀을 얻지 못한다.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제작: 김상희

BTS Kpop Kings

#### 문제풀이:

3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2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2x3 박스에 1부터 6의 숫자가 겹쳐지 않게 꾸는 퍼즐입니다.

|   |   |   |   |   |   |   |  |  |
|---|---|---|---|---|---|---|--|--|
| 1 | 7 |   | 2 |   |   | 8 |  |  |
| 9 | 8 |   | 5 | 7 | 4 | 6 |  |  |
| 5 | 6 | 4 | 1 |   | 2 | 3 |  |  |
|   |   |   |   |   |   |   |  |  |
|   |   |   |   |   |   |   |  |  |
| 8 | 7 | 1 |   |   |   | 9 |  |  |
|   |   |   |   |   |   |   |  |  |
| 4 |   | 3 |   |   |   |   |  |  |
| 8 | 5 | 2 | 6 |   |   |   |  |  |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sudoku365.net>

#### 정답

|   |   |   |   |   |   |   |   |   |
|---|---|---|---|---|---|---|---|---|
| 1 | 5 | 3 | 4 | 2 | 6 |   |   |   |
| 4 | 2 | 5 | 6 | 3 | 1 |   |   |   |
| 6 | 3 | 1 | 2 | 5 | 4 |   |   |   |
| 3 | 1 | 6 | 5 | 4 | 2 |   |   |   |
| 5 | 4 | 2 | 1 | 6 | 3 |   |   |   |
| 2 | 6 | 4 | 3 | 1 | 5 |   |   |   |
| 9 | 4 | 6 | 2 | 1 | 8 | 7 | 3 | 5 |
| 8 | 5 | 3 | 7 | 6 | 4 | 1 | 2 | 9 |
| 7 | 2 | 1 | 9 | 3 | 5 | 6 | 8 | 4 |

## 판데믹에 대응하는 자세

### 기자 수첩

이 세 경  
(유통&라이프부)



이 날이 공개되는 일이었다.  
연일 확진자들의 동선과 신상  
털이 이어졌고, 이들의 행적  
이 입장방에 오르내렸다.

안타깝게도 이번 감염증의  
가장 큰 적은 뉴스였다. 설 연  
휴기간, 취재 거리에 목마른 언  
론에 코로나19는 좋은 타깃이  
됐다. 방송과 신문은 앞다퉈 뉴  
스를 쏟아내며, 공포를 순식간  
에 키웠다. 추가 감염자를 막기  
위해 확진자가 방문했던 장소  
를 알리는 일은 물론 시급했  
다. 하지만 굳이 실시간 동선을  
공개하고, 가족들의 신상까지  
털어내는 일은 과연 필요했을  
까.

판데믹은 언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이다. 사스  
와 메르스를 겪으며 우리 정부  
와 의료기관은 감염증에 신속하  
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하지만 과도한 정보로 불안감  
을 키우는 언론과, SNS가 만들  
어내는 가짜 뉴스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 시스템은 제 기능  
을 하지 못한다. 새로운 마음가  
짐이 필요한 때다.

/seilee@metroseoul.co.kr

## 김상회의四季

### 몸의 독 마음의 독



지구가 아름다운 것은 단지 공기가 있어 숨을 쉴 수 있기 때문만  
은 아니다. 광대한 자연에는 지구 곳곳 각각의 풍토와 바람에 맞게  
식물과 채소 과일들이 잘 자라주고 있으니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다.  
강이나 바다를 통해서도 물고기와 건강에 좋은 해초를 얻는다.

저 광활한 우주 다른 별에서도 지구의 자연환경을 안다면 힘내지  
않을 수 없는 별이 될 것이다. 태양과 적당한 거리에 있다 보니  
지구의 대기는 생물이 숨을 쉬기에 적당한 산소를 공급한다. 북극  
과 남극처럼 극단의 지역이 있다 해도 온도 또한 만물이 생육되고  
생명 활동을 이어나감에 맞춤 환경이다.

풍광 좋은 지구의 토양에서 자라나는 채소와 과일은 대부분은  
훌륭한 식재료이다 영양의 보고이다. 독버섯 독초처럼 음식 재료  
로 사용할 수 없는 예도 있지만, 몸에 좋다고 알려진 여러 채소나  
식재료들을 함께 조리하여 먹었을 때 오히려 탈이 나게 하는 경우  
도 흔하니 이를 두고 음식궁합이라 한다.

먹는 것이 귀하던 시절에는 그저 배를 채울 수 있으면 좋았던 시  
절이었다. 지금은 위나 끕을 것이 흔하고 인스턴트 음식도 많아 배  
는 불러도 몸에는 독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 위나 장이 약한 사람들은  
몸에 좋다는 음식을 먹고 나서도 배탈이 난다.

산해진미라 할지라도 섭여 먹는 것은 그리 추천할 만한 것이  
못된다. 이런 이유로 뷔페음식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맛 있다고 많이 먹어도 지나치면 체지방으로 쌓이고 독소로 변한다.  
음식뿐 아니라 사랑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부부 사이의 지나친 집착은 의처증 또는 의부증이라 부른다. 이  
는 병으로 치부된다. 자식에 대한 지나친 보살핌도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라 얘기한다. 사랑을 빙자한 집착들이자 마음의 병들이  
다. 모두가 지나침에서 오는 독들이다. 사랑하되 산뜻할 줄 알아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   |   |   |   |   |   |  |  |
|---|---|---|---|---|---|---|--|--|
| 3 | 1 |   |   |   |   |   |  |  |
| 5 | 2 |   | 6 |   |   |   |  |  |
| 3 | 1 |   | 4 |   |   |   |  |  |
| 3 |   |   | 5 | 4 |   |   |  |  |
| 2 | 6 |   | 1 |   |   |   |  |  |
| 5 | 3 | 7 | 6 |   | 1 | 2 |  |  |
| 5 | 3 |   |   |   |   |   |  |  |
| 5 | 3 | 2 | 6 |   |   |   |  |  |
| 7 | 1 |   |   |   |   |   |  |  |



BTS Kpop Kings

很深的年味

谜题宝盒

谜题宝盒